

## 김원기(전 국회의장) 1차 구술

1. 구술자: 김원기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9월 19일
5. 구술장소: 서울 영등포구 한백정치경제연구소
6. 구술분량: 09분 43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1988년 국회 청문회 성사과정과 ‘스타 노무현’

구술자 : 처음 인상에 남는 것은 오(5)공 청문회, 오(5)공 비리 청문회가 돼가지고, 그때도 당이 달랐죠. 나는 이제 김대중 총재를 모시고 하는 평민당이었고 거기는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통일민주당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별로, 참 똑똑한 국회의원인데 정은 덜 갔지. 왜냐하면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더 인기가 오르고 청문회를 더 잘해야 될 텐데 인기가 온통 노무현 의원한테 가기 때문에 나로서는 답답했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딴 당에 가 있는 것이 우리한테 큰 타격이었어, 그때. 하도, 그때. 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출발이 청문회 스타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면담자 : 그때부터 사실 보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내 제일(1)야당 원내총무로서 청문회를 성사시키셨잖아요. 청문회도 성사시키고 티비(TV) 생중계도 성사시킨 것이고.

구술자 : 그렇지 그럼. 내가 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면담자 : 그때 협상과정은 어땠나요? 아마 김윤환 당시 (민정당) 총무랑 같이 카운터파트너(counter partner)가 되셨죠?

구술자 : 그때 이제 총무가 네 사람이었지. 민정당, 이제 여당인 김윤환 총무였고 제일(1)야당인 평민당 총무는 나, 김원기였고 김영삼 대통령 당의 총무는 최형우였고 김종필 총재의 총무는 누구였냐면은 김용채.

면담자 : 공화당.

구술자 : 신민주공화당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름을. 총무였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청문회의 발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면은 그 당시에 테레비(TV)가 국회 생중계를 할 수 없었어요. 본회의에서 연설이 중계되는 것은 대통령이 와서 하는 시정연설 하나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생중계를

했어요. 그래 이제 야권 공조가 돼가지고 민정당이 제일(1)당으로서 숫자는 많지만은 우리 평민당과 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이 세 당을 합치면은 의석이 약간 많았어, 민정당보다. 그래서 우리 세 당이 공조를 하자. 그래서 공조체제를 만든 거지. 이 생중계 제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김종필씨 당의 총무하고 합의를 하고 그리고 최형우 총무하고 또 합의하고. 합의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모시는 총재, 당 대표 연설도 국회 본회의장도 개방을 해서 생중계되도록 한단데. 그렇게 하고 바로 그날로, 하루에 다 해결을 했어. 김윤환 총무를 만나서 ‘이만침(이만큼) 시대가 바뀌어 지고 정치 환경이 바뀌었으면은 국회 권위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입법부인 국회에서 대통령 연설만 생중계하고 정당대표 연설 이것은 중계를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도를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거기도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또 합의를 했어.

그러면은, 합의했으면은 거기에 청와대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끼어 들고 밖에서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날로 바로 (국회)의장을 만나자, 그래 그 당시 의장이 김재순 의장이예요. 우리가, 야 사(4)당 총무들이<sup>1)</sup> 그날로 가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방송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 그래서 그 자리, 그날로 해결을 봐서 생중계 제도가 됐는데 이 청문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민주화에는 공헌을 했지.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특위 활동이랄지 상임위 활동도 중계가 되는데 특히 오(5)공 비리 청문회 거기에서, 거기에서 노무현 의원의 활동이 너무나 국민들한테 인상을 줘가지고 제도는 우리가 만드는 데 앞장을 섰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당으로서 손해를 봤어. 근데 그 청문회 제도가 처음으로 이렇게 겪어보니까, 지금은 뭐 다 당연한 걸로 알지만은, 그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더라고. 그때 청문회 제도가 생기고 ‘노무현 스타’가 탄생하고 한 다음에 동해 보궐선거인가 있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우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당에서 원내총무로서 텔레비(TV)나 각종 언론에 그렇게 오랫동안 나름대로 이름을 얻었고 보도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지만은 다중(多衆)이 모인 데 가니까 당의 당직이 높고 낮다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문제가 아니고 청문회 스타한테만 관심이 모이고. 그래서 정치의 스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중계 제도 이것이 그렇게 엄청난 정치 환경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결국 단기적으로 보서는

---

1) 여당인 민정당 김윤환 총무까지 4당을 말함.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어, ‘노무현 스타’ 때문에.(웃음)

면담자 : 그때 선배의원이라든가 당 지도부들이 노무현 의원 평가하기도 했었나요?  
청문회 활동을 보면서?

구술자 : 평가 안 할 수가 없었지. 아무리 하더라도, 상대 당에서 보더라도 ‘모든 국민들의 평가는 저쪽으로 가겠구나.’ 적절하니 공격할 것, 하고 아주 그 (문제를) 찢러 가는데 상대 당에서 볼 때는 참 속상하지, 이거.(웃음)

면담자 :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님과 두 분이 처음 보게 된 것도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였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김 대통령이) 잘 한다고.

구술자 : 그때 청문회 스타가 여럿이 있었어요. 여럿이 있었는데 딱 사람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누구나 다, 정치권에서 또 국민들도 ‘청문회 스타하면 노무현’ 이것은 공론이었으니까. 아무리 딱 당이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당에 없고 딱 당에 그런 스타가 탄생했다는 건 아쉽지만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칭찬 안 할 수도 없고.

#### ■ 구술자 주요이력

1937. 전북 정읍 출생

1955. 전주고등학교 졸업

1960.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1965.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수료

2004. 숭실대학교 명예정치학박사

2005. 전북대학교 명예정치학박사

2009. 전주대학교 명예행정학박사

1960. - 1976. 동아일보 기자

1976. 동아일보 조사부장 겸 안보통일 연구위원

1979.03 제10대 국회의원(신민당, 정읍·김제)

1979. 신민당 원내부총무

1981.04 제11대 국회의원(민한당, 정읍·고창)

1988.05 제13대 국회의원(평민당, 정주·정읍)

1988.05 - 1990.02 평민당 원내총무

1990. - 1991. 국회 문교체육위 상임위원장  
 1991.08 - 1991.09 신민당 사무총장  
 1991.09 - 1992.05 민주당 사무총장  
 1992.05 제14대 국회의원(민주당, 정주·정읍)  
 1992.05 - 1993.03 민주당 최고위원  
 1992.10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 부위원장  
 1993.03 - 1995.02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1993.04 민주당 광주특위 위원장  
 1995.12 민주당이 개혁신당과 통합, 통합민주당으로 당명변경  
 1995.12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1996.11 - 1997.11 국민통합추진회의 상임대표  
 1997.11 국민회의 고문  
 1998.05 - 1999.06 제2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1999.06 - 2000.01 국민회의 상임고문  
 2000.01 - 2000.12 새천년민주당 고문  
 2000.05 제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전북 정읍)  
 2000.12 - 2001.11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01.11 - 2002.05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2002.05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치고문  
 2002.05 - 2003.09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재추대)  
 2002.12 - 2003.09 새천년민주당 당개혁특위 위원장  
 2002.12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정치고문  
 2003.10 - 2003.11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2003.11 열린우리당 창당  
 2003.11 - 2004.01 열린우리당 공동의장  
 2004.02 - 2004.06 노무현 대통령 정치특보  
 2004.05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전북 정읍)  
 2004.06 - 2006.05 제17대 국회의장(전반기)

3선의 평화민주당 원내총무였던 13대 국회에서 통일민주당 초선의원 노무현을 처음 만났다. 3당 합당 이후 신민당과 통합한 민주당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이후에는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에서 함께 활동했다. 1997년 15대 대선 전후 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에 같이 몸담았다.

2002년 대선에서 노 후보의 정치고문을 맡았고 대통령 재임시절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자서전 <운명이다>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도, 그는 나의 정치 고문이었다(138쪽)” 고 기록하고 있다.